

美 쇠고기 10월 유통 축산농 '비상'

"광우병 위험 없다" 농림부 살코기 수입 허용

한우 산지가격 최고 39%까지 폭락 우려

제개 협상이 타결된 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5월 1차 접검에서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29개소 등 모두 36개소의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일괄 승인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문제가 됐던 7개 작업장의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수입을 최종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장 승인은 지난 1월 한미간 수입

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되며 과거 수입됐던 빠있는 갈비와 횡경막(안창살), 혀와 내장 등 각종 부산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분쇄육은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서 가공·운송기간 약 15일, 국내 도착후 검역·통관기관에서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수출작업장 승인일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뒤인 오는 10월 초순

부터 국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한우 쇠고기가 이미 품질이나 브랜드에서 별도 소비층을 확보할 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당장 국내 한우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공급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한우 산지가격은 6.4~39.2% 하락하고 대체 유통이 돼지고기는 4.1~18.5%, 닭고기는 1.9~14.5% 산지값이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오늘 광산업의 날

본사-진흥회 첨단공원서 기념행사

광주일보사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제 2회 광산업의 날 행사가 9일 오전 10시 광산구 첨단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인 광주 광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광관련업체 가족들의 사기를 높이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광산업체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체육행사, 광산업체 직원들의 장기자랑 등이 잇따라 열린다.

오후 8시 시작되는 2부 축제한마당에는 조향조, 소명을 비롯 지역 인디밴드 '가이즈', 5인조 보컬 '락신' 등 12개팀이 출연해 객석을 달군다. 또 광산업체 정기자랑팀 8개팀이 뛰어운 경연을 펼친다.

광산업발전 유공업체 시상식에서는 ▲금상=(주)오이솔루션·은상=엘리더라이텍(주), 선일텔레콤(주) ▲동상=(주)코셋, (주)골드威尔 등이 수여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한명숙 총리 5·18묘지 참배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한명숙 총리가 8일 국립 5·18묘지를 찾아 5·18민중항쟁추모탑 앞에서 현화·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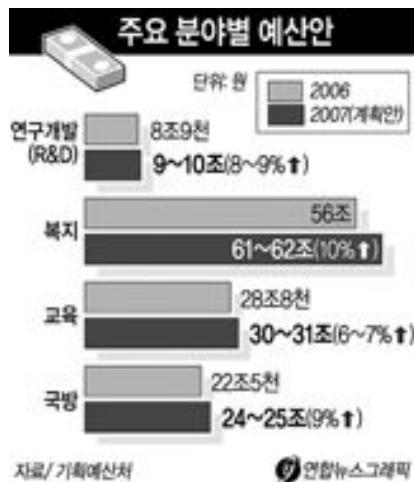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생보자 확대 등 복지예산 대폭 늘려

■내년 예산 어떻게 쓰이나

방과후 학교 1,017억 지원

국방예산 25조원 9% 증가



전521명에서 내년에는 4천명으로 늘리면서 관련 예산을 1천168억원에서 1천281억원으로 9.7% 확대키로 했다.

◇국방·통일외교=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상병의 월급을 올려 5천원에서 내년 8만원으로 올리는 등 장병들의 월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병봉급 예산은 올해 4천120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807억원으로 16.7%가 증가한다.

개성공단기반시설 예산은 올해 547억 원에서 내년 706억원으로 29.1%가 늘어나고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은 3천 969억원에서 4천854억원으로 22.2%가 증가한다.

◇농림해양수산·해양·환경=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해서는 농가 소득보전지불제를 확충하고 의료·보육·교육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마을 개발에 13.2%가 늘어나는 3천1억원, 농업생산기반확충에는 3.6%가 줄어드는 1조9천91억원, 연근해업 구조조정에는 143.4%가 증가하는 1천 3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정부는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안전을 꾀하는 데 내년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8일 발표한 '2007년 기금·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

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기본수요 총족 ▲국방개혁

지원 등 국가안전 확보 등 크게 3개 분야에 집중된다.

◇보건복지 분야=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노

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찰위성은 고성능 망원경과 디지털 카메

라 기능을 갖춘 광학위성과 야간 및 약천후

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위성이 짹이 이루고 있다.

일본측은 연내 정찰위성 2기를 쏘아 올려

지금 운용중인 1호기 2호기와 함께 4기 체제로

운용, 지상의 어떤 지점이라도 하루 1차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연합뉴스

日반도 감시 정찰위성

'광학 2호기' 10일 발사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등 한반도 상황을 감시할 정찰위성 1기를 오는 10일 쏘아올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0일 3번째 정찰위성인 광학 2호기를 자체개발한 H2A로켓에 실어 발사한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을 발사하자 미사일 위협론을 제기하며 독자 정찰위성을 도입키로 결정했었다.

정찰위성은 고성능 망원경과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갖춘 광학위성과 야간 및 약천후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위성이 짹이 이루고 있다.

일본측은 연내 정찰위성 2기를 쏘아 올려 지금 운용중인 1호기 2호기와 함께 4기 체제로 운용, 지상의 어떤 지점이라도 하루 1차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우리 한국으로서는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타르이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또 다른 도발행위가 있을 위험성'을 묻는 핀란드 기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근거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더러, 또 남북관계도 해롭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초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 노 대

- 김종우

노대통령 "北 핵실험 아무런 징후 발견 못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우리 한국으로서는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타르이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또 다른 도발행위가 있을 위험성'을 묻는 핀란드 기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근거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더러, 또 남북관계도 해롭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초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 노 대



시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당연한 조치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이 8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수의자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입장료 폐지에 반대해온다.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함께 받은 것도 불합리하다. 관람할 의사가 없는데 단순히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야 되었는가. 등반객과 일반인들은 '주너 끌만 보고 가는데 무슨 입장료냐'며 불만이었고 신도들은 '우리 절에 가는데 웬 입장료냐'고 항의해왔다.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수의자부담은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특별한 혜택을 입게 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연간 3천여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장료를 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해칠 수 있는 애로증과 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만

받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이 입장료에 대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함께 받은 것도 불합리하다. 관람할 의사가 없는데 단순히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야 되었는가. 등반객과 일반인들은 '주너 끌만 보고 가는데 무슨 입장료냐'며 불만이었고 신도들은 '우리 절에 가는데 웬 입장료냐'고 항의해왔다.

광주경찰청이 지역 사회의 협약으로 등장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남경찰청까지 나섰다. 홍영기 전남경찰청장은 8일 열린 '광주경찰청 총연합회 금요조찬회'에서 광주경찰청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경찰청은 1994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관계당국이 10년 이상 추진해 왔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된 지역 사회의 속원사업이다. 각종 지표를 보면 광주경찰청의 시급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시의 연간 범죄 발생건수는 6만2천738건으로 인구가 비슷한 인천 3천3천건, 울산 3만6천535건의 2배 수준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인천의 1.2배, 울산의 4배에 달하고 있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602명으로 전국 평균 509명보다 높다.

경찰청 신설은 치안서비스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보선 후보 11일부터 공모

전윤철 감사원장 "임기 채우겠다" 불출마 가능성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는 11일부터 공모하기로 했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당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비록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지만, 좋은 후보를 물색해서 해남·진도에서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1일부터 후보공모에 들어가고 공천심사위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정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10·25 새·보선 출마설과 관련,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0·25 보선과 관련, 9일 오전까지 후보등록신청을 마감키로 했으나 전략공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무분규 현대중 노사에 해외고객 감동

獨 콘티사, 노조위원장 부인에 선박 명명 맡겨

현대중공업 노사의 12년 연속 무분규 단체협약 타결이 해외 고객을 감동시켰다.

8일 현대중에 따르면 동일 콘티사는 이회사가 발주한 4천3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명명식(命名式) 스냅서를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부인에게 맡겼다.

콘티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대 중 직원들이 노사분규 없이 연일 생산 활동에 매진, 고품질 선박을 예정된 날

기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인도해 줘 감사하다'며 노조위원장 부인에게